

### 요즘 청년들이 5·18을 기억하고 기리는 법 '남다르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20·30대 청년들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5·18을 기억하고, 5월 정신을 실천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저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광주에서 5월 정신을 직접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였다.

## 레트로 감성으로

### 구형 버스, '시민군 버스'로 복원 사적지 투어



시민항쟁버스운영위원회가 1980년대 시내버스의 모습을 복원해 만든 '레트로 버스'.

#### ◇충남도 아산시 차량정비사, '오월 버스' 재현

민동혁(28) 시민항쟁버스운영위 대표는 5·18 전야제 행사에서 1980년 당시 '시민군 버스'를 복원, 시민들을 태우고 사적지 안내를 하는 '시민항쟁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5·18 당시 광주를 누볐던 시민군 버스에 오월 해설사와 함께 탑승해 광주 곳곳의 사적지를 돌면서 '미션 투어'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항쟁버스 운영위원회는 민 대표가 평소 알고 지내던 '레트로' 차량 전문가들과 후원자,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시민 등 12명을 모아 꾸린 단체다.

충남도 아산사에서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는 민 대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 1980년대 버스를 재현한 '시민항쟁버스'를 몰았다. 사비를 들여 버스를 입차하고, '레트로 마니아'인 자기 재능을 살려 옛 버스를 재현해냈다.

3개월여 동안 시민항쟁버스를 타고 광화문, 한남동 등 전국 각지의 사위 현장을 누볐던 그는 지난 2월 금남로에 '시민은 도청으로', '시민이어 일어서! 산자여 따르라' 등 현수막이 걸린 버스를 끌고 오기도 했다.

민 대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집회 현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응원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시민항쟁버스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5·18행사위와도 인연이 닿아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시민군 버스'를 재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민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과거와 비교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 체험하며 배우고

### 5가지 미션 챌린지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

◇ 5·18 문턱 낮추려 '체험 투어' 운영하는 청년들

광주 지역 로컬 기획자 그룹 '4도씨(4DC)'는 오는 17일 5·18민주광장 인근에서 5·18 미션 챌린지 '5·18 민주결사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민주결사대는 한강 '소년이 온다'와 유사하게, 소설에 나왔던 인물을 컨셉화한 5개 부스에서 5·18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다. 참가자들은 테마별 부스에 들어가 5가지 미션을 해결해야 하며, 이들 미션은 실제 5·18 사건의 정서와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미션은 '입을 위한 행진곡'의 빈 부분을 채워 넣거나, 시민군 통신병이 미처 남기지 못한 무전 내용을 밝혀내는 등 내용으로 꾸려지며 미션을 완수하면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방명록에 남기는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진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김꽃비(여·35)씨를 비롯한 30대 청년 기획자 4명, 이남경(여·45) 4도씨 대표 등이다.

10·20대 젊은 세대에게서 '방탈출게임' 등이 인기를 끄는 점에서 착안해 미션을 해결하면서 5·18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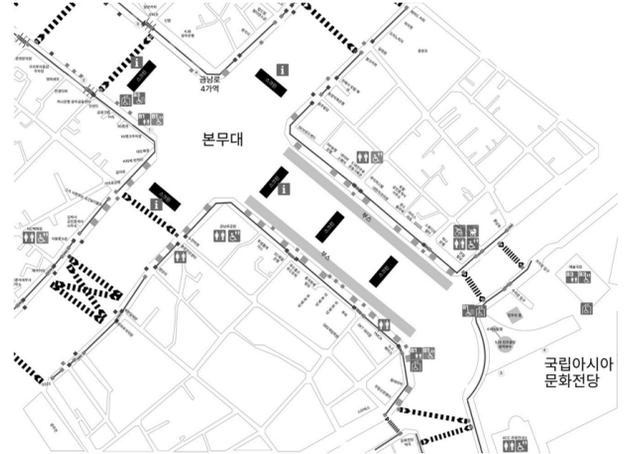
이 대표는 "광주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경험을 오늘의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청년 로컬 기획자들의 5·18 체험 프로그램인 '5·18 민주결사대' 포스터.

## 장애인과도 함께

### 5·18 행사장 '배리어 프리 지도' 만들어 배포



전남대 학생들이 만든 '배리어 프리 지도'. 각 보행로의 단차·경사로 등 휠체어 접근성을 선으로 표시하고 장애인 이용 가능 편의 시설을 픽토그램으로 표시했다.

#### ◇ 장애인도 평등하게 '배리어 프리 지도'로 대중정신 구현

전남대 소셜벤처 창업동아리 '내일' 소속 학생 6명은 5·18 행사를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 지도'를 구현했다.

배리어 프리 지도는 장애인들의 물리적·제도적 장벽이 있는 공간을 표시해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행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다. 지도를 통해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5·18 행사를 오롯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장애인 편의 증진법'을 기준 삼아 직접 장애인과 인터뷰를 거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장애인에게 불편한 요소들을 실측했다.

공개된 지도는 행사장 주변 장애인 주차구역과 주차 가능 대수,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대여소, 전동휠체어 충전소 여부와 위치, 동선 내 단차 여부(길이 2cm 초과 시 표시), 경사로 여부, 엘리베이터, 장애인 승강기, 리프트 위치 등을 촘촘히 적어놓았다. 휠체어 통행 가능 보행로를 접근성에 따라 표시하고 미닫이·여닫이·자동문 등 건물 문의 종류, 시멘트·잔디·자갈 등 길의 종류 등까지 표시해 두기도 했다.

프로젝트 매니저(대표) 이어진(여·23)씨는 "기존 광주시 무장애 지도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해결하면서 광주 5·18에도 힘을 보탬 수 있게 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했다.

앞서 2023년 12월, 허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도들이 지난해 2월 상당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바 있다.

두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경찰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

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는 등 오랜 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검찰 요청 등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14건 진정 백종원 수사

경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관련해 모두 14건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뽕'과 '쫄면' '고구마빵' 제품 등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허위 정보를 담았다는 의혹

등 6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지역축제에서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용달차로 운반했다는 주장 등이 담긴 민원 6건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 사용 의혹 등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된 2건에 대해서는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강남경찰서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